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애가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

설 미 향 이 윤 형*
대구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완벽주의와 자기애가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긍정적 완벽주의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지각하는 열등감과 부정적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지각하는 열등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실험을 통하여 평가 전과 비교하여 평가 상황과 비평가 상황에서 완벽주의와 자기에 하위유형에 따라 지각된 열등감이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정적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에 초등학생들의 열등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 전, 평가 상황 조건, 비평가 상황 조건에서 다차원적 완벽주의 특성에 따른 열등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완벽주의가 높은 집단과 긍정-부정 완벽주의 모두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평가 전에 비해 비평가 상황 이후에 더 높은 열등감을 경험하였지만 긍정적 완벽주의가 높은 집단의 경우와 비완벽주의 집단의 경우에는 평가 전에 비해 비평가 상황 이후에 오히려 더 낮은 열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의 경우에는 비자기에 집단은 평가 상황 이후의 열등감이 평가 전 열등감이나 비평가 상황 이후의 열등감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밖의 집단의 경우에는 평가 상황 이후에 다른 조건보다 높은 열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에의 하위요인들과 열등감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다차원 완벽주의, 자기애, 열등감, 긍정적-부정적, 외현적-내현적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며 필연적으로 스스로가 남보다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는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열등감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심리적 개념으로 알려져

* 교신저자: 이윤형, E-mail: hyounglee@cu.ac.kr

있다(Adler, 1956; Lee, 2003).

열등감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한 편인데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열등감과 관련해서는 열등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기 주장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며 청소년들의 비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낮은 심리적 성숙에서부터 폭력, 알코올 문제, 행동장애, 정신분열증, 망상 등의 정신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심리 사회적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김영아, 1996). 이러한 열등감의 기저에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나친 완벽주의 성향은 필연적으로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가져다주어 열등감을 유발시킨다(하정희, 조한익, 2006).

초기 완벽주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부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Burns, 1980; Hollander, 1965)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개발 이후에는 완벽주의 연구가 완벽주의의 부정적 측면과 함께 다양한 다른 측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다차원적 접근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다차원 완벽주의의 관점에서 완벽주의의 부정적 측면과 함께 긍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지지를 얻고 있다(구분용, 유제민, 2007; 남궁혜정, 이영호, 2005).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 완벽주의 개념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완벽주의적 대상 또는 행동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각의 완벽주의 개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면, Frost 등(1990)의 경우는 완벽주의를 6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완벽주의를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라는 긍정적 요인과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

의 비난, 부모의 기대, 수행에 대한 의심이라는 부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토대로 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현주(1999)는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의 경우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보다 우울과 불안이 낮고 자존감이 높다고 하였으며 현진원(1992)은 Frost 등(1990)의 완벽주의 척도 중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의 하위요인이 학업에 대한 적응과 업무 처리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긍정적 완벽주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업지연행동이 낮고(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영, 이동귀, 2009), 학업성취도가 높으며(표경선, 안도희, 2006) 학교적응에도 긍정적(구분용, 유제민, 2007)이라는 결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정적 완벽주의에 비해 긍정적 완벽주의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이기종, 2006) 긍정적 완벽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소수의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에 대한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이미화, 류진혜, 2002). 또한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에 관한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완벽주의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완벽주의 특성과 더불어 열등감의 기저에 있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기애를 들 수 있다. 자기애는 그 발현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나눌 수 있는데(Akhtar & Thompson, 1982), 외현적 자기애는 웅대한 자기상을 과시적으로 드러내어 타인의 관심과 찬사를 받음으로써 자기개념을 고양시키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을 억압하고 타인의 비난이나 평가에 과민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기개념을 보호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

다(Akhtar & Thomson, 1982; Cooper, 2000). 하지만 두 자기에 하위유형 모두 공통적으로는 타인보다 우월하거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를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고, 왜곡된 자아상과 우월 추구 성향은 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쉽게 상처를 받거나 자존감에 손상을 입는다는 공통점 또한 존재한다(Cann & Biaggio, 1989; Rhodewalt & Morf, 1998).

대부분의 자기에와 관련된 연구가 자기에를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자기에도 완벽주의와 마찬가지로 적응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강은영, 이영호, 2006, Hickman, Watson & Morris, 1996; Wink, 1991). 특히 외현적 자기에가 내현적 자기에에 비해 기능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삶의 만족도가 높고(Rose, 2002), 자신감이 넘치며(정남운, 2001), 자기평가가 긍정적이고 우울 수준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하지만 외현적 자기에의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Wink, 1991; 백승혜, 현명호, 2008) 외현적 자기에 성향 그 자체가 기능적이라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아동들의 자기에와 관련해서는 자기에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유아기에 형성되며 정상적인 자기에 성향을 가진 아동들과는 달리 병리적인 자기에를 가진 아동들은 자신의 단점과 취약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항상 타인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맹수현, 송현주, 2008; Kernberg, 1975; Kohut, 1976). 또한 아동의 부적응적 자기에 성향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보고도 존재한다(Bleiberg, 1994). 이렇듯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자기에 발달의

중요한 시기라 알려져 있음에도(Kohut & Wolf, 1978) 성인의 연구에 비해 아동의 자기에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에 성향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데 Hewitt과 Flett(1991)은 자기에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Robbins과 Dupont(1992)의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외현적 자기에와 관련되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내현적 자기에와 높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에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임혜진(1996)의 연구에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가 지배성과 상관이 높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보복성과 상관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원희(2001)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특성 중 이상적인 기준과 현실 사이의 괴리, 끊임없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여 타인의 인정과 승인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자기에와도 상당한 관련을 가지는 특성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원희와 안창일의 연구(2005)에서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자기에의 하위요인 중 우월의식, 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와 관련이 있고,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자기에의 하위요인 중 권력욕구, 특권의식, 우월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기에의 하위요인 중 과민성 요인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위혜정(2008)은 비록 완벽주의와 외현적 자기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완벽주의가 내현적 자기에를 예측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원주식(2006)과 김은혜(2009)는 내현적 자기에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완벽주의와 자기에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완벽주의

와 외현적 자기에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고 역기능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긍정적 완벽주의와 외현적 자기에는 부정적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벽주의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완벽주의를 부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며 부정적 완벽주의에 비해 긍정적 완벽주의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이기중, 2006).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여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들 중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긍정적 완벽주의 성향자들의 근본적인 심리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에와 관련하여서도 성인의 연구에 비해 아동의 자기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자기에와 관련된 주제도 다양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에 성향자들의 심리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취약성에 대해 이들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긍정적 완벽주의와 외현적 자기에를 부정적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적이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만 긍정적 완벽주의와 외현적 자기에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으며 역기능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유형과 자기에 하위유형과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고 완벽주의와 자기에 하위유형에 따른 열등감의 지각 정도와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완벽주의와 외현적 자기에에 초점을 맞추어 완벽주의와 자기에가 열등감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긍정적 완벽주의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지각하는 열등감과 부정적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지각하는 열등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상황을 설정하여 평가 전 상황과 비교하여 비평가 처치 상황과 평가 처치 상황에서 긍정적 완벽주의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지각하는 열등감의 변화가 부정적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지각된 열등감의 변화 양상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 완벽주의 성향자들은 처치 전과 비평가 상황에서 열등감에 차이가 없지만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자들은 처치 전보다 비평가 상황에서 높은 열등감을 보일 것이고, 반면에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자들이 긍정적 완벽주의 성향자들보다 평가 상황 조건에서 높은 열등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 모두 처치 전, 비평가, 평가 상황 조건 순으로 높은 열등감을 보이고,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보다 비교적 낮은 열등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아 결정에 중요한 시기로 열등감이 형성되는 학령기 아동 중 초등학교 고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은 예비 중학생으로써 평가와 학업적 부담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감에 대해 고민과 갈등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는 사춘기의 시작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본 연구에 적합한 나이로 판단하였다.

설문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의 초등학교에서 174

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실험 연구는 설문 연구와는 달리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실험을 진행해야 하고, 일정 간격을 두고 피험자와의 접촉이 요구되기 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두 곳의 학교 중 한 곳의 초등학교에서만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연구에서는 64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측정도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완벽주의 구성개념을 긍정적/부정적 완벽주의로 분류한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국내에서 정승진(199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긍정적 완벽주의 하위요인에 속하는 개인적 기준, 조직화와 부정적 완벽주의 하위요인에 속하는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 수행에 대한 의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각 문항에 대한 반응 양식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 범위는 35점에서 1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살펴보면 정승진(1999)의 연구에서 긍정적 완벽주의는 .87, 부정적 완벽주의는 .84, 전체 신뢰도는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완벽주의 .78, 부정적 완벽주의 .89, 전체 신뢰도 .89로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에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외현적 자기에 척도는 Raskin과 Hall(1979)이 DSM-III의 자기에적 성격장애 진단준거에 근거하여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외현적 자기에 측정 도구이다. 이 척도는 강제선택형의 이분법적 검사 도구로써 초기에는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Raskin과 Terry(1988)가 주성분 분석을 거쳐 54문항을 40문항으로 단축한 후 재구성하였고 하위요인으로는 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 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수정(1999)이 번안한 40문항을 정남운(2001)이 요인분석을 통해 32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문항별로 A는 1점, B는 0점으로 계산하였고 점수 범위는 0점에서 3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Raskin과 Terry(1988)의 연구에서는 .83, 한수정(1999)의 연구에서는 .85, 정남운(2001)의 단축된 검사에서는 .8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pson(1982)의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내현적 자기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 공통요인으로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착취/자기중심성과 내현적 자기에 요인으로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으로 구성하였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형 척도로 반응하고 점수 범위는 45점에서 2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고유요인만 사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선행 연구(박세란, 2004; 위혜정, 2008)를 기초로 내현적 자기에 요인 27문항만 사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신뢰도는 .91, 위혜정(2008)의 연구에서는 .93,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열등감 척도

초등학생들의 열등감 측정을 위한 도구로 신만철(1992)의 열등감 수준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김응만(1996)이 제작한 열등감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지의 열등감 하위요인은 신체적 열등감, 사회적 열등감, 감정적 열등감, 학업적 열등감으로 각각의 하위요인은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들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아주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단계로 반응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열등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열등감 검사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김응만(1996)의 연구에서는 .89, 이순애(2003)의 연구에서는 .75에서 .95 사이로 상당히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도형유추검사

실험 연구를 위해서는 도형유추검사를 과제로 사용하여 아동들에게 평가조건과 비평가 조건을 제시한 후 완벽주의와 자기에 성향에 따라 평가조건에서 열등감이 변화 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도형유추검사는 Brown(1978)의 연구를 기초로 한순미(1993)가 개발한 귀납적 추론과제에 의한 개인검사로서 도형의 변화 유형, 변화 구조 및 변화수의 세 요인들을 토대로 제작된 것이다. 변화 유형은 Sternberg(1986)가 도형 유추에서 추리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첨가(addition), 소멸(deletion)과 변형(transformation) 유형을 기초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첨가, 삭제, 변형과 더불어 크기, 명암, 위치 이동, 반사, 회전의 8가지 차원의 도형을 사용하였다.

문항 형태는 지능 검사나 적성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추 문제의 전형적인 형태인 $A : B = C : D$ 의 형태이다. 과제의 목표는 도형 A에서 C로의 변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도형 B에서 변화된 도형 D를 예문에서 찾는 것이며 이 때 변화하는 요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험자의 처리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박효정, 1996; Sternberg, 1977; Sternberg & Rifkin, 1979; Mullholland, Pellegrino & Glaser, 1980).

이와 같은 도형유추검사는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면 해결 가능하고 학업적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며 아동들의 상식과는 무관하다. 본 연구에서는 박효정(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들 중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사용하여 평가 및 비평가 상황에서 열등감을 유발시키고자 하였다.

절차

설문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다차원적 완벽주의, 자기에, 열등감 검사를 실시하여 완벽주의와 자기에 성향, 사전 열등감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에 성향자들이 평가 과제 및 비평가 과제 수행 후 지각하는 열등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1차 설문에 참여한 초등학교 중 실험이 가능한 초등학교 한 곳에서 비평가 상황 조건과 평가 상황 조건을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평가 상황 조건에서는 실시할 과제의 난이도에 대한 언급 없이 연구자와 담임교사가 틈틈이 시간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N=174)

	긍정적 완벽주의	부정적 완벽주의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M(SD)	19.88(4.37)	28.01(7.46)	7.45(3.31)	32.78(7.82)

의 경과를 알려주면서 불안감과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고, 채점을 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찾을 것이라 하였으며 제한 시간이 지난 후 즉시 열등감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비평가 상황 조건에서는 피험자에게 검사 실시 방법에 대해 설명한 다음 지금부터 실시할 과제 그리고 제한 시간 10분 동안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지 평가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안내한 후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열등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유형인 긍정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완벽주의, 자기애 하위유형인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었으며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애 그리고 열등감과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애의 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 완벽주의는 부정적 완벽주의($r=.550, p<.01$) 및 외현적 자기애($r=.363, p<.01$)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지만 내현적 자기애와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부정적 완벽주의는 내현적 자기애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r=.535, p<.01$)을 나타냈지만 외현적 자기애와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r=-.225, p<.01$)을 나타냈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애 그리고 열등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정적 완벽주의와 열등감($r=.526, p<.01$), 내현적 자기애와 열등감($r=.567, p<.01$)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긍정적 완벽주의도 열등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276, p<.01$)을 나타냈지만 외현적 자기애는 열등감과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애가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위유형인 긍정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완벽주의, 자기애의 하위유형인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열등감을 종속변인으로 하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N=174)

	긍정적 완벽주의	부정적 완벽주의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긍정적 완벽주의				
부정적 완벽주의	.550**			
외현적 자기애	.363**	.043		
내현적 자기애	.148	.535**	-.225**	
열등감	.276**	.526**	-.007	.567**

* $p<.05$, ** $p<.01$, *** $p<.001$, 이하 표에서 동일.

표 3.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에가 사전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N=174)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	R^2	ΔR^2	F
열등감	1. 내현적 자기에	.567	9.018***	.567	.321		81.325***
열등감	2. 내현적 자기에, 부정적 완벽주의	.399	5.648***	.625	.391	.070	54.837***

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표 3) 내현적 자기에가 가장 큰 설명량을 나타냈으며($\beta=.567$, $p<.001$) 부정적 완벽주의($\beta=.399$, $p<.001$)가 그 뒤를 이었다. 완벽주의와 자기에 하위유형에 따라 평가 상황과 비평가 상황 후에 열등감의 변화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조건별로 사전 열등감 점수와 비평가 상황 조건 실험 후 열등감 점수, 평가 상황 조건 실험 후 열등감 점수의 차이를 변량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열등감 측정시기에 따른 후 열등감 점수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열등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서는 점수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류의 임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집단에 따른 분류 기준을 긍정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완벽주의 각각의 점수에서 상위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부정적 완벽주의 점수가 하위 50%에 해당하고 긍정적 완벽주의 점수가 상위 50%에 해당하는 집단을 긍정적 완벽주의 집단이라고 하였고, 긍정적 완벽주의 점수가 하위 50%에 해당하고 부정적 완벽주의 점수가 상위 50%에 해당하는 집단을 부정적 완벽주의 집단으

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완벽주의 점수 모두가 상위 50%에 해당하는 집단을 긍정-부정 완벽주의 모두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긍정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완벽주의 점수 모두가 하위 50%에 해당하는 집단을 비 완벽주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을 분류한 후 집단에 따른 열등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 전 열등감, 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 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을 반복측정 변량분석 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평가 전 열등감, 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 평가 상황 후 열등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열등감 상황 조건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2.632$, $p<.001$).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과 평가 전 열등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과 평가 전/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7.442$, $p<.001$). 즉, 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과 평가 전 열등감의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평가 상황 조건 후에는 평가 전 과 비평가 상황 조건 후 보다 열등감이 증가하였다.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 조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

표 4. 열등감 측정시기에 따른 열등감의 평균과 표준편차(N=63은 이하 표에서 동일함)

	평가 전 열등감	비평가 상황 후 열등감	평가 상황 후 열등감
M(SD)	79.75(26.20)	78.02(27.19)	89.79(30.14)

표 5.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열등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긍정 완벽 높은 집단 (N=12)	부정 완벽 높은 집단 (N=9)	긍정, 부정 높은 집단 (N=23)	비완벽주의 집단 (N=19)
	M (SD)	M (SD)	M (SD)	M (SD)
평가 전 열등감	59.92 (18.29)	80.44 (26.57)	93.65 (25.89)	75.11 (22.24)
비평가 상황 후 열등감	57.75 (21.32)	83.78 (28.08)	95.13 (22.73)	67.37 (22.41)
평가 상황 후 열등감	78.17 (27.31)	103.89 (38.93)	100.74 (27.54)	77.21 (23.71)
합계	65.28 (22.31)	89.37 (31.19)	96.51 (25.39)	73.23 (22.79)

는데($F=2.839, p<.05$)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완벽주의 유형에 따라 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과 평가 전 열등감의 변화에 차이를 보였다($F=3.653, p<.05$). 즉, 긍정적 완벽주의 집단과 비완벽주의 집단은 평가 전 열등감과 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이 차이가 없었으나 긍정-부정 완벽주의 모두 높은 집단과 부정적 완벽주의 집단은 비평가 상황 조건에서도 열등감의 증가를 나타냈다.

자기에 성향에 따른 열등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에 따라 앞서 완벽주의 성향을 분류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기에 집단을 분류한 후 집단에 따른 열등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가 전 열등감, 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 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을 반복측정 변량분석 하였다.

그 결과 자기에 성향에 따른 평가 전 열등감,

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 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의 차이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3.352, p<.001$).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과 평가 전 열등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과 평가 전/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6.074, p<.001$). 즉, 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과 평가 전 열등감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평가 상황 조건 후에는 평가 전/비평가 상황 조건 후보다 열등감이 증가하였다.

자기에 성향과 평가 조건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F=2.583, p<.05$)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과 평가 전 열등감의 비교에서는 자기에 유형에 따른 변화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평가 상

표 6.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열등감 차이

변량원	SS	df	MS	F
평가 조건	6959.419	2	3297.709	22.632***
조건 * 완벽유형	2481.724	6	413.621	2.839*
Error	17193.663	118	145.709	

표 7. 자기에 성향에 따른 열등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외현 높은 집단 (N=18)	내현 높은 집단 (N=17)	외현, 내현 높은 집단 (N=17)	외현, 내현 낮은 집단 (N=11)
	M (SD)	M (SD)	M (SD)	M (SD)
평가 전 열등감	67.61 (21.84)	85.82 (29.52)	92.12 (23.87)	71.09 (21.67)
비평가 상황 후 열등감	63.17 (22.74)	88.35 (29.65)	91.29 (23.74)	65.82 (18.81)
평가 상황 후 열등감	76.78 (21.41)	105.59 (29.94)	103.24 (30.09)	65.91 (17.50)
합계	69.19 (22.00)	93.25 (29.70)	95.55 (25.90)	81.40 (24.23)

황 조건 후 열등감과 평가 전/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은 자기에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F=2.792, p<.05$). 즉, 외현-내현적 자기에 모두 높은 집단, 내현적 자기에 집단, 외현적 자기에 집단은 평가 상황 조건에서 다른 조건보다 열등감의 증가를 보였지만 비자기에 집단은 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이 증가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에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에 성향에 따른 열등감의 지각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완벽주의는 외현적 자기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완

벽주의는 내현적 자기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긍정적 완벽주의는 부정적 완벽주의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는 반면,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에는 서로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긍정적 완벽주의가 부정적 완벽주의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는 것은 긍정적 완벽주의 성향과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높은 완벽성 추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김지현, 2007). 다른 관점으로는 완벽주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완벽주의의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하정희, 조한익, 2006) 그 하위유형의 특성이 독립적이지 않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에의 경우에도 둘 다 자기 가치감을 조절하는

표 8. 자기에 성향에 따른 열등감 차이

변량원	SS	d	MS	F
평가 조건	3935.794	2	1967.897	13.352***
조건 * 자기에유형	2284.227	6	380.704	2.583*
Error	17391.160	118	147.383	

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지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이질적 집단이며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성격적 특성이 엄연히 구분된다는 기존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Akhtar & Thompson, 1982).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애와 열등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 완벽주의, 부정적 완벽주의, 내현적 자기애는 열등감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지만 외현적 자기애는 열등감과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여러 부적응적인 심리 특성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Akhtar & Thompson, 1982; Kohut, 1971). 또한 긍정적 완벽주의 성향자들도 열등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모두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Dunkley, Zuroff와 Nlankstein(2003)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애가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완벽주의가 열등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현적 자기애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더 역기능적이라는 연구 결과(이준득 등, 2007; Watson, Taylor & Morris, 1987)를 지지하며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부정적인 자기 평가가 여러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Akhtar & Thompson, 1982; Kohut, 1971). 긍정적 완벽주의와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긍정적 완벽주의가 부정적 완벽주의보다 기

능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박현주, 1999; 현진원, 1992; Frost et al., 1990)와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내현적 자기애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강연우, 2004;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와 일치한다.

실험을 통해 평가 전 열등감, 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 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완벽주의 집단과 비완벽주의 집단에서는 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이 감소하였지만 부정적 완벽주의 집단과 긍정-부정적 완벽주의 모두 높은 집단은 오히려 사전 열등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부정적 완벽주의 모두 높은 집단과 부정적 완벽주의 집단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높은 수준의 수행을 자신에게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만족감이나 성취감보다 늘 자신을 비난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족함으로써 항상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한다는 Burns(1980) 과 Hamachek(1978) 그리고 Pacht(1984)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긍정적 완벽주의 집단의 경우 열등감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완벽주의 성향자들의 열등감은 열등감 극복을 위한 노력을 유발시키는 것과 같이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미화와 류진혜(200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자기애 성향에 따른 열등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통해 평가 전 열등감, 비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 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자기애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집단에서 평가 상황 조건 후 열등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가 높을수록 실패 피드백을 받았을 때 더 많은 분노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Cam과 Biaggio(1989)의 연구와 자신이 설정한

높은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자기에 성향자들은 쉽게 우울감에 빠져들게 된다는 권석만과 한수정(2000)의 주장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에적 특성 안에 적응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선행 연구들(강은영, 이영호, 2006; Hickman, Watson & Morris, 1996; Wink, 1991)과 외현적 자기에가 내현적 자기에보다 기능적이라고 주장하는 선행 연구(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정남운, 2001; Rose, 2002)와는 반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외현적 자기에가 높다고 해서 기능적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강연우(200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보다 적응적인 방어유형을 사용하지만 동시에 부적응적인 방어기제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와 동일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완벽주의 연구는 부정적 완벽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완벽주의 연구가 부정적 완벽주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그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자기에의 경우도 완벽주의와 마찬가지로 자기에의 역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외현적 자기에와 완벽주의의 관계에 관해 살펴본 연구도 많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긍정적 완벽주의와 외현적 자기에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완벽주의 그리고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가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긍정적 완벽주의와 외현적 자기에가 어떠한 심리학적 개념과 연관되어지느냐에 따라 기능적/역기능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일관성 없이 제시되어 혼란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들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열등감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핵심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열등감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열등감 감소 훈련과 열등감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자기에라는 심리학적 변인을 통해 인간이 지각하는 열등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평가 상황과 비평가 상황을 제시하여 실험과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자기에 성향자들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열등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며 특히 자기에와 열등감과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살펴본 것은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것이다.

셋째, 인간의 열등감이 정신병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심리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특히 현대사회가 요구한다고 할 수 있는 완벽성과 자기에 성향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열등감 실험 상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와 자기에 성향자들의 분류는 이들을 측정하는 척도의 점수를 환산하여 각 변인의 점수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선정하여 긍정적 완벽주의 집단, 부정적 완벽주의 집단, 긍정-부정적 완벽주의 모두 높은 집단, 비완벽주의 집단, 외현적 자기에 집단, 내현적 자기에 집단, 외현-내현적 자기에 모두 높은 집단, 비자기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완벽주의와 자기에 하위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분류적도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에가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첫 번째 연구에서는 174명의 피험자들이 실험에 참여하였지만 평가 상황과

비평가 상황을 가정한 실험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의 수가 63명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조건당 피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실험 결과 각 조건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조건당 피험자 수가 적은 것이 실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학생생활연구, 9, 83-98.
- 강은영, 이영호 (2006). 이차원 자기에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자기주도적 자기에 및 타인의존적 자기애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397-415.
- 구본용, 유제민 (2007). 중·고등학생의 다차원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5(1), 67-76.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 사랑의 함정. 서울: 학지사.
- 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영, 이동귀 (2009).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에 따른 하위 집단과 학업지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39-56.
- 김영아 (1996). 정신과 의사가 원하는 열등감 치유방법. 서울: 두란노.
- 김은혜 (2009). 공적 자의식, 자기제시 동기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응만 (1996). 열등감 해소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열등감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7). 완벽주의의 기능성: 완벽주의와 적응지표들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궁혜정, 이영호 (2005). 이차원 완벽주의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917-936.
- 맹수현, 송현주 (2008). 아동·청소년의 자기애에 대한 연구 고찰. 심리치료, 8(2), 129-143.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박현주 (1999).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의 구분 및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효정(1996). 아동의 도형 유추 과제 해결능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신만철 (1992). 아동기의 열등감수준과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주식 (2005).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위혜정 (2008). 완벽주의가 내현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기중 (2006). 완벽주의의 구성요인 탐색. 교육논총, 26(2), 95-116.
- 이미화, 류진혜 (2002).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청소년학 연구, 9(3), 293-316.

- 이순애 (2003). 고등학교 학생들의 열등감과 문제 행동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원희 (2001). 자기애와 완벽주의, 적대감 및 자기 효능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희, 안창일 (2005). 자기애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9-36.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임혜진 (1996).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정승진 (1999). 완벽성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표경선, 안도희 (2006).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완벽주의, 성취목적, 부모 양육방식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모형. 아동교육, 15(2), 211-227.
- 하정희, 조한익 (2006). 비합리적 신념에 따른 완벽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73-896.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한순미 (1993). 귀납적 추론과제에서의 아동의 근접발달대 측정.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ler, A.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In H. Ansbacher & R. Ansbacher (Eds.), New York: Harper and Row.
- Akhtar, S., & Thomp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Bleiberg, E. (1994). Normal and Pathological Narcissism in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8(1), 30-51.
- Brown, A. L. (1978). Knowing When, Where, and How to Remember: A Problem of Metacognition. In R. Glaser(Ed.). *Advance in Instructional Psychology*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1, 34-52.
- Cann, J.,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 64, 55-58.
- Cooper, A. M.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53-74, London: Jason Aronson Inc.
- Dunkley, D. M., Zuroff, D. C., & Nlankstein, K. R. (2003). Self-Critical Perfectionism and Daily Affects: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234-252.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1, 27-39.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ickman, S. E., Watson, P. J., & Morris, R. J. (1996). Optimism, Pessimism and Complexity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4), 521-525.
- Holla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 94-103.
- Kernberg, O. F. (1975). *Bo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6).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 Wolf, E, S. (1978). *The Disorders of Self and Their Treatment: An Outline*(In Essential Papers on Narcissism).
- Lee, M. H.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eriority and Psycho-Maturity of Adolescents*. Unpublishe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Mullholland, T. M., Pellegrino, J. W., & Glaser, R. (1980). Components of Geometric Analogy Solution. *Cognitive Psychology*, 12, 252-284.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890-902.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72-685.
- Rob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462-467.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Sternberg, R. J. (1977). Component Processes in Analogical Reasoning. *Psychological Review*, 84, 353-378.
- Sternberg, R. J. (1986). *Intelligence Applied: Understanding and Increasing Your Intellectual Skills*. San Diego: Harcourt BraceJovanovich.
- Sternberg, R. J., & Rifkin, B. (1979). The Development of Analogical Reasoning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7, 195-232.
- Watson, P. J., Taylo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7-8), 335-350.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1차 원고 접수: 2011. 06. 03

수정 원고 접수: 2011. 08. 20

최종 게재 결정: 2011. 08. 22

The Effects of Positive Perfectionism and Overt Narcissism on the Personal Inferiority

Mi Hyang Seol Yoonhyou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narcissism on the personal inferiority.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 of the positive perfectionism and the overt narcissism on the personal inferiority instead of focusing on the negative perfectionism and the covert narcissism, which are the two main topics of the interest on majority of the personal inferiority studi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vert narcissism and the negative perfectionism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personal inferiority while the positive perfectionism and the overt narcissism showed little influence on the personal inferiority. Also, the results showed that all experimental groups experienced increased personal inferiority after the complex inducing situation. However, those with high negative perfectionism and those with high overall perfectionism expressed increased personal inferiority even after the complex non-inducing situation. Those with low overall narcissism showed little increase on the personal inferiority while others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on the personal inferiority.

Keyword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narcissism, personal inferiority, positive-negative, overt narcissism-covert narcissism

